

셀라의 경

(Sela sutta, 숫따니빠따 Sn3.7, 전재성님역)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 때 세존께서는 천이백오십 명의 수행승들과 함께 앙굿따라빠(*1)에서 유행하시다가 아빠나(*2)라고 하는 앙굿따라빠의 한 마을에 도착하셨다.

2. 이 때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3)는 이와 같은 소문을 들었다.

[아빠나의 군중] “싸끼야 족의 아들로써 싸끼야 족에서 출가한 수행자 고타마가 천이백오십 명의 수행승들과 함께 앙굿따라빠에서 유행하시다가 아빠나라고 하는 앙굿따라빠의 한 마을에 도착하셨다.

그 세존이신 고타마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한 님,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이해하는 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님, 사람들을 길들이시는 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부처님이신 세존이다’라고 명성을 드날리고 있다.

그는 이 하늘 사람들의 세계, 악마들의 세계, 하느님들의 세계, 성직자들과 수행자들의 세계, 그리고 하늘과 인간의 세계에 관해 스스로 알고, 깨달아, 가르친다.

그는 처음도 착하고, 중간도 착하고, 끝도 착하고, 의미를 갖추고, 표현을 갖춘 가르침을 설하고, 충만하고 순결한, 청정한 삶을 가르친다. 이와 같은 거룩한 분을 만나 뵈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주해(*1) 마하마이강의 북쪽 언덕의 양가 국의 잘 관개된 지역이다.

주해(*2) 양가 족들은 마가다 국의 동쪽 지방에 오늘 날의 바갈뿌르 근처에 있는 참빠에 수도를 정하고 살았다. 2 만개의 상점이 있는 상업이 융성한 도시였다.

주해(*3) 께니야는 대 부호인 바라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결발 수행자가 되었다. 그는 왕으로부터 땅을 하사받고 그곳에 아슈람을 지어 천명의 가족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곳에는 매일 황금색 열매를 생산하는 종려나무가 있었다. 께니야는 낮에는 황색 가사를 입은 수행자 행세를 하였으나 밤에는 감각적 쾌락을 즐겼다.

3. 그리고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존과 함께 인사를 하고 안부를 서로 주고받은 뒤에 한 쪽으로 물러앉았다. 한 쪽으로 물러앉은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를 세존께서 가르침으로 훈계하고 교화하고 격려하고 기쁘게 했다.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는 존자 고타마의 가르침으로 훈계 받고 교화되고 격려 받고 기쁨을 부여받아 세존께 말씀드렸다.

[께니야] “세존이신 고타마께서는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저의 식사를 받아 주십시오.”

[세존] “께니야여, 수행승의 무리는 많아서 천이백오십 인이나 됩니다. 또한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4.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는 세존께 다시 말씀드렸다.

[께니야] “비록 수행승의 무리가 많아서 천이백오십 인이나 되고 또한 제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세존이신 고타마께서는 수행승의 참모임과 함께 내일 저의 식사를 받아주십시오.”

[세존] “께니야여, 수행승의 무리는 많아서 천이백오십 인이나 됩니다. 또한 당신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5.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는 세존께 세 번째로 말씀드렸다.

[께니야] “비록 수행승의 무리가 많아서 천이백오십 인이나 되고 또한 제가 바라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만, 세존이신 고타마께서는 수행승의 참모임과 함께 내일 저의 식사를 받아주십시오.”

세존께서는 침묵으로 허락하셨다.

6. 그러자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는 세존께서 허락하신 것을 알고,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의 아슈람이 있는 곳으로 가서 친구와 동료, 친지와 친척들에게 말했다.

[께니야] “친구와 동료, 친지와 친척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나는 수행자 고타마를 그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나를 위해 필요한 준비와 조치를 해주십시오.”

7. [친구와 동료, 친지와 친척들] “존자여, 그렇게 하겠습니다.”

친구와 동료, 친지와 친척들은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에게 대답하고 어떤 이들은 화덕을 파고, 어떤 이들은 장작을 패고, 어떤 이들은 그릇을 씻고, 어떤 이들은 웅기에 물을 길어다 붓고, 어떤 이들은 자리를 준비했다. 그리고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아 자신은 흰 천을 씌운 둥근 천막을 만들었다.

8. 이때에 아빠나에 셀라(*1)라는 바라문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세 가지 베다와 그 어휘론, 의계론, 음운론, 어원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고전설에 통달했으며, 관용구에 능하고, 문법에 밝고, 세간의 철학(*2)과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숙달했다. 삼백 명의 바라문 학인들에게 베다를 가르치고 있었다.

주해(*1) Sela : 결발 수행자 께니야의 친구로 앙굿따라빠에 살던 바라문이다. 그는 과거불 빠두똣따라 부처님 당시에 300 명의 어떤 조합의 주장이었다. 그는 그들과 함께 빠두똣따라 부처님을 위해 승방을 짓고 많은 보시를 행했다. 그 공덕으로 현생에서 승단에 들어오게 되었다.

주해(*2) 세간의 철학 : 궤변론을 말한다. 그러나 후세 인도에서는 유물론을 말한다.

9. 그 무렵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는 바라문 셀라를 신봉하고 있었다. 마침 그때 바라문 셀라는 삼백 명의 학인들에게 둘러싸여 거닐며 이리저리 유행하다가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의 아슈람이 있는 곳을 찾았다.

바라문 셀라는 께니야의 아슈람에 사는 상투를 튼 고행자 들이, 어떤 이들은 화덕을 파고, 어떤 이들은 장작을 패고, 어떤 이들은 그릇을 씻고, 어떤 이들은 웅기에 물을 길어다 붓고, 어떤 이들은 자리를 준비하고,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아 자신은 흰 천을 씌운 둥근 천막을 만드는 것을 보았다.

10. 보고나서 그는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에게 물었다.

[셀라] “존자 께니야가 누구를 장가보내는 것입니까? 혹은 시집보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큰 제사가 있습니까? 또는 마가다 국왕 쉘리아 빔비싸라가 군대를 이끌고 내일 식사하러 오게 돼 있습니까?”

11. [께니야] “셀라여, 저는 장가보내지도 않고, 시집보내지도 않으며, 또는 마가다 국왕 쉘리아 빔비싸라를 초대하지도 않았습시다. 다름이 아니라, 제게는 큰 축제가 있습니다. 싸끼야 족의 아들로써 싸끼야 족에서 출가한 수행자 고타마가 천이백오십 명의 수행승들과 함께 앙굿따라빠에서 유행하시다가 아빠나라고 하는 앙굿따라빠의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그 세존이신 고타마께서는 이와 같이 ‘거룩한 님, 올바르게 원만히 깨달은 님, 명지와 덕행을 갖춘 님, 바른 길로 잘 가신 님, 세상을 이해하는 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신 님, 사람들을 길들이시는 님, 신들과 인간의 스승이신 님, 부처님이신 세존이다’라고 명성을 드날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을 수행승들의 참모임과 함께 내일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12. [셀라] “존자 께니야여, 당신은 그를 깨달은 님이라 말했습니까?”

[깨니야] “존자 셀라여, 나는 그를 깨달은 님이라 말했습니다.”

[셀라] “존자 깨니야여, 당신은 그를 깨달은 님이라 말씀했습니까?”

[깨니야] “존자 셀라여, 나는 그를 깨달은 님이라 말했습니다.”

13. 그러자 바라문 셀라에게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셀라] ‘깨달은 분이란, 이 세상에서 그 목소리를 듣기조차 힘든 일이다. 그런데 우리들의 성전에는 서른두 가지의 위대한 사람의 특징이 전수되고 있다. 그러한 모든 특징을 성취한 위대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운명밖에는 다른 것이 주어지지 않는다.

만약 재가에 있다면 전륜성왕으로서, 정의로운 법왕으로서 사방을 정복하여 나라에 평화를 가져오고 일곱가지 보물을 성취한다. 그에게는 이와 같은 일곱 가지 보물, 즉 수레바퀴의 보물, 코끼리의 보물, 말의 보물, 구슬의 보물, 여자의 보물, 장자의 보물, 일곱 번째로 대신의 보물이 생긴다. 또한 그에게는 용맹하고 영웅적이어서 적군을 부수는 천명 이상의 자녀가 생긴다. 그는 대륙을 큰 바다에 이르기까지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칼을 사용하지 않고 정법으로서 정복한다.

그러나 만약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하면, 이 세상에서의 모든 덮개를 제거하는 거룩한 님, 오히려 원만히 깨달은 님이 된다.

14. 그래서 바라문 셀라는 상투를 튼 고행자 깨니야에게 물었다.

[셀라] “존자 깨니야여, 그럼 그 거룩한 님, 오히려 원만히 깨달은 님인 고타마께서는 어디에 지금 계십니까?”

15. 그러자 상투를 튼 고행자 깨니야는 오른 팔을 들어 바라문 셀라에게 말했다.

[깨니야] “존자 셀라여, 저쪽으로 가면 푸른 숲이 있습니다. 그곳에 부처님이 계십니다.”

16. 그래서 바라문 셀라는 삼백 명의 바라문 학인과 함께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그때 바라문 셀라는 그들 바라문 학인들에게 말했다.

[셀라] “그대들은 소리를 내지 말고 와서 주의 깊게 걸어라. 모든 세존들은 사자처럼 홀로 거니는 분으로 가까이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수행자 고타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한, 그대들은 중간에 참견을 해서는 안 된다.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한다.

”

17. 그리고 바라문 셀라는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다가가서 세존과 함께 인사를 하고 서로 안부를 주고받은 뒤에 한쪽으로 물러앉았다. 그리고 한쪽으로 물러앉은 바라문 셀라는 세존의 몸에서 서른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살폈다.

이때에 바라문 셀라는 세존의 몸에서 서른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대부분을 보았으나 오직 두 가지를 찾지 못했다. 그 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그가 의심스러워하고 의혹을 가지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을 상실했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은 몸속에 감추어진 성기의 특징과 긴 혀 바닥의 특징이었다.

18. 마침 세존께 이와 같은 생각이 떠올랐다.

[세존] ‘이 바라문 셀라는 나에게서 서른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의 대부분을 보았으나 오직 두 가지를 찾지 못했다. 그 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에 대하여 그가 의심스러워하고 의혹을 가지자 마음이 불안해지고 믿음을 상실했는데, 그 두 가지 특징은 몸속에 감추어진 성기의 특징과 긴 혀 바닥의 특징이다’

19. 그래서 세존께서는 바라문 셀라가 세존의 감추어진 성기의 특징을 볼 수 있도록 신통력을 발휘했다. 또한 세존께서는 혀 바닥을 내어 양쪽 귀의 구멍에 달게 하고, 양쪽 콧구멍에 달게 하고 앞이마를 혀 바닥으로 덮었다.

20. 그러자 바라문 셀라는 이렇게 생각했다.

[셀라] ‘수행자 고평마는 서른두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갖추고 계시다. 그러나 나는 그가 깨달은 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다. 다만 나는 늙고 나이가 많아, 스승이나 또는 스승의 스승들이 ‘거룩한 님들, 올바로 원만히 깨달은 님들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칭찬 받을 때는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적당한 시로써 수행자 고평마를 그 앞에서 찬탄하면 어떨까?’

21. 그래서 바라문 셀라는 세존의 면전에서 적당한 시로써 찬탄하였다.

22. [셀라] “당신은 몸이 완전하고(*1) 탁월하게 빛나며, 훌륭하게 태어나, 보기에도 아름답고, 용모는 금빛으로 빛나며, 치아는 아주 험니다. 스승이시여, 당신은 정진력을 갖춘 분입니다.

23. 참으로 태생이 좋은 사람이 갖추는 특징이 모두 위대한 사람의 상호로서 당신의 몸에 있습니다.

24. 맑은 눈, 잘 생긴 얼굴, 흰칠하고, 단정하고, 위엄있어 수행자들 속에서도 마치 태양처럼 빛납니다.

주해(*1) 32 가지 위대한 사람의 특징을 갖춘 것이다.

25. 보기에도 선한, 수행승이 황금빛 같은 피부와 이렇듯 빼어난 용모를 지니셨는데, 수행자의 삶에 만족하십니까?

26. 전문성왕이 되시어 전차위의 정복자, 사방에 승리하는 세계의 지배자가 되셔야 합니다.

27. 왕족이나 지방의 왕들은 당신께 충성을 맹세할 것입니다. 고평마여, 왕 중의 왕으로서(*1), 인간의 제왕으로서 통치하십시오.”

28. [세존] “셀라여, 왕이지만 나는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2) 바퀴를 굴립니다. 결코 거꾸로 돌릴 수 없는 바퀴를 굴립니다.

주해(*1) 전문왕의 동의어이다.

주해(*2)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법들로 이루어진 법’을 말한다.

29. [셀라] “올바로 깨달은 자라고 선언하시니 ‘위없는 가르침의 왕으로 진리의 바퀴를 굴린다’라고 고평마여, 당신은 말씀하십니다.

30. 그렇다면 누가 당신의 장군입니까? 스승을 따르는 제자는 누구입니까? 이미 굴려진 가르침의 바퀴를 누가 당신의 뒤를 이어 굴릴 것입니까?”

31. 세존께서 대답했다.

[세존] “셀라여, 내가 굴린 위없는 바퀴, 위없는 가르침의 바퀴를 사리뿔따가 굴릴 것입니다. 그는 여래의 계승자입니다.

32. 나는 곧바로 알아야 할 것은 곧바로 알았고, 닦아야 할 것을 이미 닦았으며, 버려야 할 것을 이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바라문이며, 나는 깨달은 자입니다.

33. 바라문이며, 나에 대한 의혹을 없애고, 나에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언제나 올바로 깨달은 님들을 만나기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34. 나는 이 세상에서 그 존재를 결코 만나보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바라문이며, 나는 올바로 깨달은 자, 위없는 자, 화살을 뽑아버린 자입니다.

35. 비길 데 없는 하느님으로서(*1) 악마의 군대를 때려 부셨으며, 모든 적을(*2) 항복시켰으므로 어떠한 곳에서도 두려움 없이 기뻐합니다.

주해(*1) 범천의 존재를 뜻하지만, 불교적 의미로서는 최상의 존재로서 성스러운 존재 또는 청정한 존재를 의미한다.

주해(*2) 존재의 다발, 번뇌, 유위적인 조작, 사신(死神), 하늘 아들(天子), 악마 등의 모든 원수를 말한다. 여기서 하늘아들이 포함된다는 이유가 있다. 쌍웃따니까야에 하늘 사람의 품을 보면 부처님은 천상세계에 태어난 사람들과는 견해를 달리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6. [셀라] “그대들이여, 눈을 갖춘 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경청하라.

화살을 뽑아버린 위대한 영웅께서 사자처럼 숲 속에서 포효하신다.

37. 하늘님으로서 비길 데 없고, 악마의 군대를 때려 부셨으니,
누가 보고 믿지 않을 것인가. 천한 신분의 출신이라도 믿으리라.

38. 원하는 자는 나를 따르고 원하지 않는 자는 가거라.

나는 탁월한 지혜를 지닌 분께 이 자리에서 출가하겠다.

39. [셀라의 제자들] “올바로 깨달은 님의 가르침을 만일 존자께서 기뻐하신다면,
그 탁월한 지혜를 지닌 님께 저희들도 이 자리에서 출가 하겠습니다.”

40. [셀라] “저희들 삼백 명의 바라문은 합장하고 청합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당신 곁에서 청정한 삶을 닦겠습니다.

41. [세존] “셀라여, 지금 여기에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1) 청정한 삶은 잘 설해져 있고,

그것을 위해 출가하여 방일하지 않고 배우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42. 바라문 셀라는 대중들과 함께 스승 앞에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그 때 상투를 튼 고행자 껌니야는 그날 밤이 지나자 자기의 수행 처에

여러 가지 맛있는 씹을 만하고 먹을 만한 음식을 차려놓고

세존께 시간이 된 것을 알렸다.

[껌니야] “고따마시여, 때가 되었습니다. 식사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해(*1) ‘지금 여기’ ‘현세’를 말하고 ‘무시간적인, 시간에 매이지 않는’의 의미를 지닌다. 붓다고사는 성스러운 길을 실천하면 그 결과가 즉시 나타난다는 의미에서 ‘즉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한다. 시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즉시 효과적인 것, 또는 시간을 초월하는 것’의 두 가지 의미가 모두 함축 될 수 있다.

짜밋디의 경에 보면 ‘벗이여, 나는 다가오는 시간을 버리고 현재를 쫓습니다. 벗이여, 왜냐하면 감각적 쾌락은 시간에 매이며 괴로움이 많고 아픔이 많고 재난이 넘치는 것입니다. 이 성스런 가르침은 현세의 삶에 유익한 것이고, 시간을 뛰어넘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할만한 것이고, 최상의 목표로 이끄는 것이며, 슬기로운 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세존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

43.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침 일찍 옷을 입고 발우와 가사를 들고 상투를 튼 고행자 껌니야의 수행처가 있는 곳을 찾았다. 그리고 수행승의 무리와 함께 미리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껌니야는 부처님을 비롯한 수행승들에게 씹을 만하고 먹을 만한 여러 가지 훌륭한 음식을 몸소 대접하여 그들을 기쁘게 해드렸다.

그리고 상투를 튼 고행자 껌니야는 세존께서 식사를 마치고 발우에서 손을 떼자, 다른 낮은 자리를 취해서 한 쪽으로 물러앉았다. 한 쪽으로 물러앉은 상투를 튼 고행자 껌니야를 세존께서는 이와 같은 시로써 기쁘게 하셨다.

44. [세존] “불의 현공은 제사 가운데 으뜸이고,*1) 싸비뜨리는 베다의 운율 가운데 으뜸이고, 왕은 사람들 가운데 으뜸이며, 바다는 모든 강 가운데 으뜸입니다.

45. 달은 뭇별 중에서 으뜸이며, 태양은 빛나는 것 중에서 으뜸이고, 공덕을 바라고 공양하는 사람들에게 참모임이 가장 으뜸인(*2) 것입니다.

46. 세존께서는 상투를 튼 고행자 께니야에게 이러한 시를 읊어 기쁘게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셨다. 대중들을 거느리고 있던 존자 쉐라는 홀로 떨어져서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정진하였다. 그는 오래지 않아 훌륭한 가문의 제자들이 그러기 위해 올바로 집에서 집 없는 곳으로 출가했듯이 위없이 청정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알고 깨달아 성취했다. 그는 ‘태어남은 부서지고 청정한 삶은 이루어졌다. 해야 할 일을 다 마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알았다. 마침내 존자 쉐라는 거룩한 님 가운데 한 분이 되었다.

주해(*1) 불의 현공은 화신에게 바치는 현공으로 신선한 불에 곡류나 버터 등을 던져 넣어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말한다.

주해(*2) Mdb.762 에 따르면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공덕이 으뜸이고, 공양하는 사람에게는 승가가 으뜸이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47. 그후 존자 쉐라는 대중들과 함께 세존께서 계신 곳을 찾았다. 가까이 다가가서 한쪽 어깨에 옷을 걸치고, 세존께 합장하여 이와 같은 시로써 여쭙었다.

48. [쉐라] “눈을 갖춘 님이시여, 당신께 귀의한지 오늘로써 여드레 되었습니다만, 세존이시여, 이레가 지나서 당신의 가르침에 길들여졌습니다.

49. 당신은 깨달으신 분이요, 스승이요, 악마의 정복자이요, 성자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악한 경향을(*1) 끊고, 몸소 건너시고, 사람들을 건너주십니다.

50. 당신은 집착의 대상을 뛰어넘고, 모든 번뇌를 부수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을 버리고, 공포를 여의어, 집착할 만한 것이 없는 사자이십니다.

51. 이들 삼백 명의 수행승은 합장하고 서 있습니다. 영웅이여, 발을 뻗쳐주십시오. 그들 코끼리들이 스승께 예배드리려합니다.

주해(*1) 원래는 ‘잠재적인 경향’[隨眠]을 말한다. MN. 9. 올바른 견해의 경은 이와 같이 말한다. : 벗들이여, 고귀한 제자가 이와 같이 접촉을 잘 알고, 접촉의 발생을 잘 알고, 접촉의 소멸을 잘 알고, 접촉의 소멸에 이르는 길을 잘 알면, 그는 완전히 1) 탐욕의 잠재적 성향을 제거하고, 2) 분노의 잠재적 성향을 제거하고, 3) ‘나는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의 잠재적 성향을 제거하고, 무명을 버리고 명지를 일으키며 현세에서 괴로움의 종식을 성취한다.

-쉐라의 경이 끝났다-

Suttanipata

3. Mahāvaggo

3. 1 Pabbajjā suttaṃ

3-7 Selasuttaṃ

Evamaṃ me sutamaṃ ekaṃ samayaṃ bhagavā aṅguttarāpesu cārikaṃ caramāno mahatā bhikkhusaṅghena saddhiṃ aḍḍhatejasehi bhikkhusatehi [PTS Page 103] [q 103/] yena

āpaṇaṃ nāma aṅguttarāpānaṃ nigamo tadavasari, assosi kho keṇiyo jaṭilo samaṇo khulu bho gotamo sakyaputto sakyakulā pabbajito aṅguttarāpesu cārikaṃ caramāno mahatā bhikkhusaṅghena saddhiṃ aḍḍhateḷasehi bhikkhusatehi āpaṇaṃ anuppatto, taṃ kho pana bhavantaṃ gotamaṃ evaṃ kalyāṇo nitti saddo abbhuggato "itipi so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vijjācaraṇasampanno sugato lokavidu anuttaro purisadammasārathi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ti so imaṃ lokaṃ sadevakaṃ samārakaṃ sabrahamakaṃ sassamaṇabrāhmaṇiṃ paṇaṃ sadevamunassaṃ sayamaṃ abhiññā sacchikatvā pavedeti, so dhammaṃ deseti ādikalyāṇa majjhe kalyāṇaṃ pariyosānakalyāṇaṃ sātthaṃ sabyañjanaṃ kevalaparipuṇaṇaṃ pariyuddhaṃ brahmacariyaṃ pakāseti, sādhu kho pana tathārūpānaṃ arahataṃ dasasnaṃ hoti'ti.

[BJT Page 168] [\x 168/]

Atha kho keṇiyo jaṭil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aṃ, upasaṅkamtivā bhagavatā saddhiṃ sammodi, sammodiniyaṃ kathaṃ sārāṇiyaṃ vitisār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aṃ kho keṇiyaṃ jaṭilaṃ bhagavā dhammiyā kathāya sandassesī samādapesi samuttepesī sampahasesī.

Atha kho keṇiyā jaṭilo bhagavatā dhammiyā kathāya sandassito samādapito samuttejito sampahaṃsito bhagavantaṃ etadavoca: adhvāsetu me bhavaṃ gotamo svātanāya bhantaṃsaddhiṃ bhikkhusaṅghenāti, evaṃ vutto bhagavā keṇiyaṃ jaṭilaṃ etadavoca: mahā keṇiya, bhikkhusaṅgho [PTS Page 104] [\q 104/] aḍḍhateḷasāni bhikkhusatāni, tvaṅca kho brāhmaṇesu abhippasannoti. Dutiyampi kho keṇiyo jaṭilo bhagavantaṃ etadavoca kiñcāpi bho gotama, mahā bhikkhasaṅgho aḍḍhateḷasāni bhikkhusatāni, ahaṅca brāhmaṇesu abhippasanno, adhvāsetu me bhavaṃ gotamo svātanāya bhantaṃ saddhiṃ bhikkhusaṅghenāti, tutiyampi kho keṇiyo jaṭilaṃ etadavoca mahā keṇiya, bhikkhasaṅgho aḍḍhateḷasāni bhikkhusatāni, tvaṅca kho brāhmaṇesu abhippasannoti, tutiyampi kho keṇiyo jaṭilo bhagavantaṃ etadavoca kiñcāpi bho gotama, mahā bhikkhasaṅgho aḍḍhateḷasāni bhikkhusatāni, ahaṅca brāhmaṇesu abhippasanno, adhvāsetu me bhavaṃ gotamo svātanāya bhantaṃ saddhiṃ bhikkhusaṅghenāti, bhikkhusaṅghenāti,

Adhvāsesī bhagavā tuṇahibhāvena.

Atha kho keṇiyo jaṭilo bhagavantaṃ adhvāsanaṃ viditvā utthāyasā yena sako assame tenupasaṅkamaṃ, upasaṅkamtivā mittā macce nātisālohite āmantesī: suṇantu me bhavanetā mittā macacā nātisālohitā samaṇo me gotamo nimantito svātanāyabhantaṃ sadadhiṃ bhikkhusaṅghena yena me kāyaveyyāvaṭikaṃ kareyyāthiti.

Evaṃ hoti kho keṇiyassa jaṭilassa mittāmaccā nātisālohitā keṇiyassa jaṭilassa paṭissutvā appekacce uddhanānani khaṇanti, appekacce kaṭṭhāni phārenti, appekacce bhājanti dhovanti, appekacce udakamaṇikaṃ patitthāpentī, appekacce āsanāni paññāpentī. Keṇiyo pana jaṭilo sāmānyeva maṇḍalamālaṃ paṭiyādeti.

[BJT Page 170] [\x 170/]

Tena kho pana samayena solo brāhmaṇo āpaṇe paṭivasati tiṇaṇaṃ [PTS Page 105] [\q 105/] vedānaṃ pāragu sanighaṇaṭukeṭubhānaṃ sakkharappabhedānaṃ itihāsapañcamānaṃ padako veyyākaraṇo lokāyatamahāpurisalakkhaṇesu anavayo tīṇi

māṇavakasatāni matte vāceti, tena kho samayena keṇiye jaṭile selo brāhmaṇo abhippasanno hoti

Atha kho solā brāhmaṇo tihī māṇavakasatehi parivuto jaṅghāvihāraṃ anucaṅkammāno anuvicaramāno yena keṇiyassa jaṭilassa assamo tenupasaṅkamaṃ. Addasā kho solo brāhmaṇo keṇiyasmim̃ jaṭile appekacce uddhanānani khaṇante, appekacce kaṭṭhāni phāleti, appekacce bhājanti dhovanti, appekacce udakamaṇikaṃ patiṭṭhāpentī, appekacce āsanāni paññāpentī. Keṇiyaṃ pana jaṭilaṃ sāmam̃yeva maṇḍalamālaṃ paṭiyādentam̃ disvā keṇiyaṃ jaṭilaṃ etadavoca:

Kinno bhoto keṇiyassa āvāho vā bhavissati, vihāho vā bhavissati, mahāyaṅṅo vā pacucapaṭṭhito, rājā vā māgadho seniyo bimbisāro nimantino svātanāya saddhiṃ balakāyenāti.

Na me sela, āvāho bhavissati, napi vihābho bhavissati napi rājā māgadho seniyeba bimbisāronimatti tosmātanāyasaddhiṃ balakāyena, api ca kho me mahāyaṅṅo nā paccupaṭṭhito atithi. Samaṇo gotamo sakyaputto sakyakulā pabbajito aṅguttarāpesu cārikaṃ caramāno mahatā bhikkhusaṅghena saddhiṃ aḍḍhateḷasehi bhikkhusatehi āpaṇaṃ anuppatto, tam̃ kho pana bhavantaṃ [PTS Page 106] [ḷq 106/] gotamaṃ evaṃ kalyāṇo nitti saddo abbhuggato "itipi so bhagavā arahaṃ sammāsambuddho vijjācaraṇasampanno sugato lokavidu anuttaro purisadammasārathi satthā devamanussānaṃ buddho bhagavā"ti so me nimattito svātanāya saddhiṃ bhikkhusaṅghenāti.

Buddhoti kho bho keṇiya, vadesi? Buddhoti bho sela, madāmi, buddhoti bho keṇiya, vadesi? Buddhoti bho sela vadāmiti.

[BJT Page 172] [ḷx 172/]

Atha kho selassa brahmaṇassa etadahosi: ghosopi kho eso dullabho lokasmim̃ yadidaṃ buddho'ti. Āgatāni kho pana asmākaṃ mantesu dvattim̃sa mahāpurisalakkhanāni yi samannāgatassa mahāpurisassa dveva gatiyo bhavanti anaṅṅā. Sace agāraṃ ajjhāvasati, rājā hoti cakkavatti dhammiko dhammarājā cāturanto vijitāvi janapadatthācariyappatto santaratanasamannāgato. Tassimāni sattaratanāni bhavanti, seyyathīdaṃ: cakkaratanaṃ hatthiratanaṃ assaratanaṃ maṇiratanaṃ itthiratanaṃ gahapatiratanaṃ pariṇāyakaratanameva sattamaṃ, parosahassaṃ kho panassa puttā bhavatti surā viraṅgarūpāparasenappamaddanā, so imaṃ paṭhaviṃ sāgarapariyantaṃ adaṇḍena asatthena dhammena abhivijiya ajjhāvasati. Sace kho panā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ti arahaṃ hoti sammāsambuddho loka vivattacchaddo.

Kahaṃ pana bho keṇiya, etarahi so bhavaṃ gotamo viharati arahaṃ sammā sammuddho'ti.

Evaṃ vutte keṇiyo jaṭilo dakkhiṇaṃ bāhaṃ paggahetvā selaṃ brāhmaṇaṃ etadavoca: yenesā [PTS Page 107] [ḷq 107/] bho sela nilavanarājiti,

Atha kho selo brāhmaṇo tihī māṇavakasatehi saddhiṃ yena bhagavā tenupasaṅkakamaṃ, atha kho selo brāhmaṇo te māṇavake āmantesi: appasaddā honto āgacchantu pāde padaṃ nikkhipantā, durāsadā hi te bhagavanto sīhāva ekavarā, yadā vāhaṃ bhonto, samaṇena

gotamena saddhiṃ manteyyaṃ mā me bhonto, antarantarā kathaṃ opāsetha,
kathāpariyosānaṃ me bhavanto āgamentuti.

Atha kho selo brāhmaṇ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tivā bhagavatā saddhiṃ
sammodi, sammodaniyaṃ kathaṃ sārāṇiyaṃ | vitisār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o kho selo brāhmaṇo bhagavato kāye dvattiṃsamahāpurisalakkhaṇāni samnessi²,
addasā kho solo brāhmaṇo bhagavato kāye dvattiṃsa mahāpuraghalakkhaṇāni yebhuyyena
ṭhapetvā dve, dvisu mahāpurisalakkhaṇesu kaṅkhati vicikicchati nādhimuccati na
sampasidati, kosohite ca catthaguyhe pahutajivhatāya ca,

1. Sāraṇiyaṃ - machasaṃ, mu -2 2. Samamanenasi - machasaṃ, mu²,

[BJT Page 174] [\x 174/]

Atha kho bhagavato etadahosi: passati kho me ayaṃ selo brāhmaṇo
dvittiṃsamahāpurisalakkhaṇāni yebhuyyena ṭhapetvā dve, dvisu mahāpurisalakkhaṇesu
kaṅkhati vicikicchati nādhimuccati na sampasidati, kosohite ca catthaguyhe pahutajivhatāya
cāti. Atha kho bhagavā tathārūpaṃ iddhābhisaṅkhāraṃ abisaṅkhāsi yathā addasa selo
brāhmaṇo bhagavato kosohitaṃ catthaguyhaṃ, [PTS Page 108] [\q 108/] atha kho
bhagavā jivhaṃ ninnāmetvā ubhopi kaṇhasotāni anumasi paṭimasi, ubhopi nāsikasotāni
anumasi paṭimasi, kevalampi laḷāṭamaṇḍalaṃ jivhāya chadesi.

Atha kho selassa brahmaṇassa etahosi samannāgato kho samaṇo gotamo
dvattiṃsamahāpurisalakkhaṇehi paripuṇṇehi no aparipuṇṇehi no ca kho naṃ jānāmi buddho
vā no vā, sutaṃ kho pana metaṃ brāhmaṇānaṃ vuddhānaṃ mahallakānaṃ
ācariyapācariyānaṃ hāsamānānaṃ, ye te bhavanti arahanto sammāsambuddho te sakevaṇṇe
bhaññamāne attānaṃ pātukarontiti, yannunāhaṃ samaṇaṃ gotamaṃ sammukhā sārubbāhi
gāthāhi abhitthaveyyanti, atha kho sele brāhmaṇo bhagavantaṃ sammukhā sārubbāhi gāthāhi
abhitthavi.

551. Paripuṇṇakāyo suruci sujāto cārudasasano,
Suvaṇṇavaṇṇosi¹- bhagavā susukkadāṭhosi viriyavā.

552. Narassa hi sujātassa ye bhavanti viyañjanā
Sabbe te tava kāyasmīṃ mahāpurisalakkhaṇā.

553. Pasannanetto sumukho brahā uju patāpavā,
Majjhe samaṇasaṅghassa ādicco'va virocasi.

554. Kalyāṇadassano bhikkhu kañcanasannibhattaco,
Kiṃ te samaṇabhāvena evaṃ uttamavaṇṇino.

1. Suvaṇṇavaṇṇoti - sīmu 2

[BJT Page 174] [\x 174/]

555. Rājā arahasi bhavituṃ cakkavatti rathesabho,
Cāturanto vijitāvi jambusaṇḍassa issaro.
[PTS Page 109] [\q 109/]

556. Khattiyā bhojarājāno anuyuttā bhavatti te,
Rājābhirājā manujindo rajjaṃ kārehi gotama.

557. Rājāhamasmi1- sela (iti bhagavā) dhammarājā anuttaro,
Dhammena cakkam vattemi cakkam appativattiyam

558. Sambuddho paṭijānāsi (i tselo brāhmaṇo) dhammarājā
Dhammena cakkam vattemi ita bhāsasi gotama

559. Konu senāpita bhoto sāvako satthudanthayo,
Ko te imam anuvatteti dhammacakkam pavattitam

560. Mayā pavattitam cakkam (selāti bhagavā) dhammacakkam anuttaram,
Sāriputto anuvatteti anujāto tathāgataṃ

561. Abhiññeyyam abhiññātam bhāvetabbañca bhāvitaṃ,
Pahātabbam pahinaṃ me tasmā buddhosmi brāhmaṇa

562. Vinayassu mayi kaṅkham adhimuccassu brāhmaṇa,
Dullabham dassanam hoti sambuddhānam abhiṇhaso.
[PTS Page 110] [\q 110/]

563. Yesam vo dullabho loke pātubhāvo abhiṇhaso,
So'ham brāhmaṇa sambudedhā sallakatto anuttaro

564. Brahmabhuto atitulo mārasenappamaddano,
Sabbāmitte vasikatvā modāmi akutohaya.

565. Imam bhonto nisāmetha yathā bhāsati cakkhumā,
Sallakatto mahāvīro siho va nadati vane

1. Rājāhamasmiṃ - simu 2

[BJT Page 178] [\x 178/]

566. Brahmabhūtam atitulaṃ mārayenappamaddanam,
Ko disvā nappasideyya api kaṅhābhijātiko.

567. Yo mam icchati anthetu yo vā nicchati gacchatu,
Idhāham pabbajissāmi varapaññassa santike

568. Etañce rucati bhoto sammāsambuddhasāsanam,
Mayampi pabbajissāma varapaññassa santike.

569. Brāhmaṇā tisaṭā ime yāvanti pañjalikatā,
Bhmacariyam carissāma bhagavā tava santike.

570. Svākkhātam brahmacariyam (selāti bhagavā) sandiṭṭhikamakalikaṃ,
Yatthu amoghā pabbajjā appamattassa sikkhatoti.

Alattha kho selo brāhmaṇo saporiso bhagavato santike pabbajjaṃ alattha upasampadaṃ.
Atha kho keṇiyo jaṭilo tassā attiyā accayena sake assame paṇitaṃ khādaniyaṃ bhojaniyaṃ
paṭiyādāpetvā bhagavato [PTS Page 111] [v 111/] kālaṃ ārocāpasi, kālo bho gotama
niṭṭhitaṃ bhattanti.

Atha kho bhagavā pubbanahasamayaṃ nivāsetvā pattacivaramādāya yena keṇiyassa jaṭilassa
assamo tenupasaṅkami. Upasaṅkamtivā paññatte āsane nisīdi, saddhiṃ bhikkhusaṅghena.
Atha kho keṇiyo jaṭilo buddhapamukhaṃ bhikkhusaṅghaṃ paṇitena khādaniyena
bhojaniyena sahatthā santappesi sampavāresi. Atha kho keṇiyo jaṭilo bhagavantaṃ
bhuttāmiṃ onitapattapāṇiṃ aññataraṃ nicaṃ āsanaṃ gahetvā ekamantaṃ nisīdi.
Ekamantaṃ nisinnaṃ kho kheṇiyaṃ jaṭilaṃ bhagavā imāhi gāthāhi anumodi.

571. Aggihuttamukhā yaññā sāvitti chandaso mukhaṃ,
Rājā mukhaṃ manussānaṃ nadinaṃ sāgaro mukhaṃ.

572. Nakkhattānaṃ mukhaṃ cando ādicco tapataṃ mukhaṃ,
Puññaṃ ākaṅkhamānānaṃ saṅgho ce yajataṃ mukhatti.

[BJT Page 180] [x 180/]

Atha kho bhagavā keṇiyaṃ jaṭilaṃ imāhi gāthāhi anumoditvā utthāyāsanaṃ pakkāmi. Atha
kho āyasmā selo pasariso eko vupakaṭṭho appamatto ātāpi pahitatto viharatto na cirasseva
yassatthāya [PTS Page 112] [v 112/] kulaputtā sammadeva agārasmā anagāriyaṃ
pabbajanti. Tadanuttaraṃ brahmacariyapariyosānaṃ diṭṭhava dhamme sayāṃ abhiññā
sacchikatvā upasampajja vihāsi.

Khiṇā jāti vusitaṃ brahmacariyaṃ kataṃ karaṇiyaṃ nāparaṃ itthāntāyāti. Abbhaññāsi
aññataro ca kho paṇāyasmā selo sapariyo arahataṃ ahosi.

Atha kho āyasmā selo sapariyo yena bhagavā tenupasaṅkami. Upasaṅkamtivā ekaṃsaṃ
cīvaraṃ katvā yena bhagavā tena ñajaliṃ papaṇāmetvā bhagavantaṃ gāthāhi ajjhabhāsi.

573. Yaṃ taṃ saraṇamāgama ito aṭṭhami cakkhuma,
Sattarattena bhagavā dantambha tava sāsane.

574. Tuvaṃ buddho tuvaṃ satthā tuvaṃ mārābhābhū muni,
Tuvaṃ anusaye chetvā tiṇṇo tāresi'maṃ pajaṃ

575. Upadhi samatikkantā āsavā te padālītā,
Sihosi anupādāno pahiṇahayabheravo.

576. Bhikkhavo tisaṭā ime tiṭṭhanti pañjalikatā,
Pāde cira pasārehi nāgā candantu satthunoti.

+++

Selasuttaṃ niṭṭhitaṃ

++++

[BJT Page 182] [\x 182/]

587. Nahi runtena sokena santiṃ pappoti cetaso,
Bhīyasasuppajjate dukkhaṃ sarīraṃ upabhaññati.
[PTS Page 114] [\q 114/]

588. Kiso vicaṇṇo bhavati bhīṃsamattānamattatā,
Na tena petā pāpentī nīratthā paridevatā.

589. Sokamappajahaṃ janatu bhīyeyā dukkhaṃ nigacchati,
Anutthunanto kālakataṃ sokassa vasamanthagu.

590. Aññepi passa gamine yathākammupage nare,
Maccuno vasamāgamma phandante vidha pāṇino.

591. Yena yena hi maññanti tato taṃ hoti aññathā,
Etādiso vinābhāvo passa lokassa pariyāyaṃ.

592. Api ce vassasataṃ jīve bhīyo vā pana mānavo,
¥āṭisaṅghā vinā hoti jānāti idha jīvitaṃ.

593. Tasmā arahato sutvā vineyya paridevitaṃ¹,
Pe taṃ kālekataṃ disvā na so labbhā mayā iti.

594. Yathā saraṇamādintaṃ vārinā parinibbuto,
Evampi dhīro sappañño paṇḍito kusalo naro
Khippamuppatitaṃ sokaṃ vāto tulaṃva ḍaṃsaye.

595. Paridevaṃ pajappañca domanassañca attano,
Attano sukhamesāno abbahe sallamattano.

596. Abbuḥhasallo asito santiṃ pappuyya cetaso,
Sabbasokaṃ atikkanto asoko hoti nibbutoti.

Sallasuttaṃ niṭṭhitaṃ

1. Paridevinaṃ - mu 2

[BJT Page 186] [\x 186/]

Suttanipāta

III MAHĀVAGGA

7. Selasutta To Sela the Brahmin.

I heard thus.

At one time the Blessed One was touring the country of Anguttarāpa with a large community of bhikkhus, about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fifty and entered a hamlet named Aapana. The matted hair ascetic Keniya heard "The good recluse Gotama, son of the Sākyas touring the country of Anguttarāpa with a large community of bhikkhus, about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fifty bhikkhus have come to the hamlet Aapana. Of him such fame has spread, he is blessed, all knowing, endowed with knowledge and conduct, is well gone, knower of the worlds, an incomparable tamer of those to be tamed, Teacher of gods and men, enlightened and blessed. He preaches to the world together with its gods Māras, Brahmās, the community of recluses and brahmins and gods and men, that Teaching by himself known and realized. That Teaching is good at the beginning, in the middle and at the end, full of meaning even in the letter and it explains the complete and pure holy life. It is good to see such worthy ones."

Then the matted hair ascetic Keniya approached the Blessed One, exchanged friendly greetings and sat on a side. The Blessed One spoke to the matted hair ascetic according to the Teaching instructing, advising, inciting and making his heart light. The matted hair ascetic Keniya, instructed, advised, incited and made light hearted by the Blessed One said thus: "May the Blessed One accept tomorrow's meal from me together with the community of bhikkhus". When this was said the Blessed One said: "O! Keniya, the community of bhikkhus is too large about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fifty, are the brahmins pleased about this For the second time Keniya said: "O! Gotama, how ever much the community of bhikkhus , even if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fifty, the brahmins are pleased, may the Blessed One accept tomorrow's meal from me together with the community of bhikkhus." For the second time the Blessed One said: "O! keniya, the community of bhikkhus is too large about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fifty are the brahmins pleased about this." For the third time Keniya said: "O! Gotama, how ever much the community of bhikkhus, even if, one thousand two hundred and fifty, the brahmins are pleased, may the Blessed One accept tomorrow's meal from me, together with the community of bhikkhus."

The Blessed One accepted in silence.

Then Keniya the matted hair ascetic knew that the Blessed One had accepted, got up from his seat, went to his hermitage and addressed his friends and blood relations: "Good sirs, listen, I

have invited the recluse Gotama for tomorrow's meal together with the community of bhikkhus, whatever work there is to be done, do them for me." They accepted Keniya the matted hair ascetic's request and some of them dug furnaces, others axed fire-wood. Some washed vessels, placed water vessels and some arranged seats.

The matted hair ascetic Keniya himself arranged the circular hall. At that time the brahmin Sela lived in Aapana perfect in the three vedas, learned in the rules and rites as officiating priest, learned in the phonology and etymology of words and the fivefold history in words and grammar, and learned in tracing the marks of a Great Man. And he taught these to three hundred young men orally.

At that time Keniya the matted hair ascetic was friendly with the brahmin Sela. And so the brahmin Sela accompanied by the three hundred young men was walking and wandering for exercise bent towards the hermitage of the matted hair ascetic. Then the brahmin Sela saw the matted hair ascetics at work in the hermitage of Keniya, some digging furnaces, others axing fire-wood, washing vessels, placing water vessels others arranging seats and Keniya the matted hair ascetic himself arranging the circular hall. And he said to Keniya "What, good Keniya, will there be a woman brought here, or one given away, or will there be a great sacrifice, or is Seniya Bimbisāra the king of Magadha invited for tomorrow's meal together with his army." "Sela, to me there would not be, a woman brought nor given away, Seniya Bimbisāra the king of Magadha is not invited for tomorrow's meal together with the army, yet there is a great sacrifice for me: the recluse Gotama son of the Sākyas, who has gone forth from the Sākya clan, touring the country of Anguttarāpa with a large community of bhikkhus has come to Aapana. Of him such fame has spread, he is blessed, worthy, all knowing, endowed with knowledge and conduct, well gone, knower of the worlds, the incomparable tamer of those to be tamed, teacher of gods and men, enlightened and blessed. I have invited him for tomorrow's meal together with the community of bhikkhus". "Does good Keniya say enlightened" " "Good Sela, I say enlightened". "Does, good Keniya say enlightened" "Good Sela, I say enlightened." Then it occurred to the brahmin Sela, " even the sound 'Enlightened' is rare in the world. The sacred sayings hand down thirty two marks of a Great Man, endowed with which there are only two courses of action for the Great Man and not another. If he leads a household life he becomes a universal monarch, a righteous king who would rule the four quarters endowed with the seven jewels. The jewel of the wheel, the elephant, the horse, the gem, the jewel of the woman, the householder, and the advisor. He has more than a thousand sons all clever with heroic figures. Defeating foreign armies, he would rule the country surrounded by the ocean without weapons and punishments. If he leaves the household and goes forth, becomes worthy, all knowing rolls the veil away from the world. Good Keniya, where does the Enlightened One, worthy and all knowing live now" Then Keniya the matted hair ascetic stretched out his right hand and said "There! In the green deep forest".

Then the brahmin Sela with the three hundred young men approached the Blessed One, while going he addressed the young men "good sirs, come with little noise raising one foot after the other, Blessed Ones are far from noise and live alone like lions. While I am talking with the recluse Gotama, do not arouse conversations among yourselves and enter when our conversation ends."

Then the brahmin Sela approached the Blessed One, exchanged friendly greetings sat on a side, and examined the thirty two marks of a Great Man. He saw most of the marks of a Great

Man, except two. He had doubts as to whether the pudendum was encased and whether the tongue was large enough to cover the face. Then it occurred to the Blessed One, this brahmin Sela saw most of the marks of a Great Man except two, he has doubts, as to whether the pudendum is encased and the tongue is large enough to cover the face. Then the Blessed One performed a psychic exercise so that the brahmin Sela could see the Blessed One's pudendum encased and the large tongue. The Blessed One pulled out his tongue and with it touched both ear lobes, nostrils and the whole forehead, and covered up the whole face with it.

Then it occurred to the brahmin Sela, indeed the recluse Gotama is endowed with all the thirty two marks of a Great Man, yet we do not know whether he is enlightened. I have heard it said by learned aged brahmins, that Great Men when praised disclose what they are, whether they are worthy and enlightened. What if I eulogize the recluse Gotama with meaningful verses and so he eulogized the Blessed One saying these verses.

548. "O! Blessed One, you are handsome, has pleasing looks is well born and is lovely to look at, You have a golden hue, and strong white teeth..

549. To the well born, there are marks All the marks of a Great Man are evident on your body.

550. You have pleasant eyes a beautiful mouth, a straight and majestic body In the midst of the community you shine like the sun.

551. The bhikkhu with good looks is like a statue of gold What is the use of your recluseship when so handsome.

552. You should be a universal monarch, the leading charioteer Winning the four quarters, should be the monarch of Jambudvīpa.

553. Should have warrior subordinate kings attached to you, O! Gotama, king of kings, win over the humans and rule".

554. The Blessed One said: "Sela, I am the righteous king, incomparable, Righteously I turn the wheel, not ever to be stopped." . .

555. The brahmin Sela said: " Acknowledges complete Knowledge, and is the righteous incomparable king And Gotama says that he will turn the wheel righteously

556. Who are the good one's generals, the disciples who would follow the Teacher, For the wheel of the Teaching to roll on, who would roll it afterwards."

557. The Blessed One said: "Sela, this incomparable wheel of righteousness rolled on by me, Sariputta, born after the Thus Gone One will roll it afterwards.

558. Brahmin, realizing, what should be realized, developing what should be developed. I have dispelled what should be dispelled, therefore I'm enlightened."

559. The brahmin Sela said: "O! Brahmin, dispel my doubts, and release me, The presence of an enlightened one is always rare.

560. That which is rare in the world has appeared. The all enlightened one, the incomparable surgeon.

561. Become Mahā Brahmā have destroyed the army of Death, Winning over, all enemies, abide happily without fear."

562. "Good sirs listen to what the wise one says, The surgeon, the great hero, roars in the forest like a lion

563. Become Mahā Brahmā have destroyed the army of Death Seeing him who would not be pleased except those with low birth

564. Those who wish, follow me, and the others could go Now I go forth in the noble wise one's dispensation.."

565. "If you, sir, like the dispensation of the all enlightened one, We too will go forth in the noble wise one's dispensation." .

566. "O! Blessed One, these three hundred brahmins with clasped hands, Beg for the going forth in your dispensation."

567. The Blessed One said: "Ssela, the holy life is well proclaimed, is here and now and not a matter of time, Here the not deluded go forth and train diligently"

The brahmin Sela together with his following obtained the going forth and the higher ordination in the dispensation of the Blessed One.

Then Keniya, the matted hair ascetic at the end of that night prepared plenty of nourishing eatables and drinks in his hermitage and informed the Blessed One: "It is time venerable sir, the food is ready."

The Blessed One putting on robes in the morning , taking bowl and robes approached the matted hair ascetic's hermitage and sat on the prepared seats together with the community of bhikkhus. Then Keniya, the matted hair ascetic with his own hands served and satisfied the community of bhikkhus headed by the Enlightened One with the nourishing eatables and drinks. When the Blessed One had finished partaking the meal, and had put the bowl away, Keniya took a low seat, sat on a side and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thanks giving with these verses.

568. "Of sacrifices the fire sacrifice is the chief, the vedic hymn Sāvitti is the foremost of hymns, The king is chief for humans, to rivers the ocean is important

569. To the constellation the moon is chief, to give warmth the Sun is chief, To those desiring merit the Community of bhikkhus is the chief."

The Blessed One doing the thanks giving with these verses, got up from his seat and went away. Then venerable Sela and his following, alone, withdrawn from the crowd and secluded abode diligently for dispelling. Before long, for whatever purpose sons of clansmen rightly go forth from a household, that highest end of the holy life, he here and now knew, realized

and abode. He knew birth is destroyed, the holy life is lived to the end, what should be done is done, there is nothing more to wish, Venerable Sela became an arahant and also his following became arahants. Then venerable Sela approached the Blessed One together with his following. Arranging the robe on one shoulder, clasping hands towards the

Blessed One addressed the Blessed One in verses. 570. "Wise One, this is the eighth day, after we took your refuge. In seven nights we are tamed in your dispensation.

571. You are enlightened, Teacher, the sage who has overcome Death, You crossed, with destroyed dormant tendencies and crosses over this populace.

572. Endearments overcome have destroyed desires, Is like a lion without seizures fears big and small overcome.

573. Here stand the three hundred bhikkhus with clasped hands Hero, stretch out your feet, Great Men worship the Teacher.